

씨런로왕 箕氏天老王에게 방수 帛일청 方士伯一淸이 주나라로 보러
 나아와 선도를 전하거늘 런로왕이 帛일청으로 스승을 삼고 선술을 공
 부홀시 구선되 求仙臺를 홀골산 紇骨山에 지으니 놀기 오막장이라 보
 석과 화문석으로 싸앗으며 영선악 迎仙樂을 비류강 沸流江상에 배풀
 고 궁녀들노 영선무 迎仙舞를 춤추었으며 래청도관 太淸道觀을 다물
 군多勿郡에 짓고 방수들을 히도중에 보닉여 선악을 구하였스나 런로
 왕이 단약을 먹다가 홍충에 불이 니러나 답답함으로 조울燥鬱하여
 죽었스니 그왕은 장성하기를 구하다가 수한을 더욱 단축短促히 돈돈
 거시오 또흔 열선전을 불지라도 되고 급급히 신선이라 하는자나 하
 나도 죽자아니함이 업느니 장성불스라 하는말이 실노 어리석은자를
 속이는 거짓말이라 넷적에 광성王廣成子의년과는 천여세라하고 磬조彭
 祖는 팔백세에 요스天死하다 하였으며 동방삭 東方朔은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안기성 安期生적용자赤松子를 좇차가던 장자방張子房은 한
 서漢書에 말하기를 류후장량 留侯張良이 죽다하였고 상산소호 商山四

경 명 산 성

皓 네신선의 일홍은 동원공 東園公과 하황공 夏黃公과 괴리개 綺里

季와 록리선성 角里先生이라 하고조 漢高祖를 뵈을때에 슈미鬚眉가

호백皓白하고 의관衣冠이 심위甚偉라 하였스나 년세가 불과 팔십여라

하였스니 불구에 다 죽은지라 었지 장성불스라 하리오 넷적에 장슈

長壽호 샤름들은 서국에도 만흐니 아렬雅列은 구백륙십세에 즐하고

마도살랍 馬土撒拉은 구백륙십구세에 즐하고 나야挪亞는 구백오십세에

즐하였시나 신선이란말씀은 듯지못 하였스오니 샤름이 오리삶으로 었

지 신선이라하며 장성불스라 하리오 또흔 런상런하에 임의로 왕래호

다함은 더욱 거짓말씀이라 샤름이 룽신을 변화호후에 런국에 드러감

도 하느님의 권능이어늘 샤름이 었지 제힘으로 혈기지신 血氣之身을

가브압게 하야 임의로 런상에 올라가리오 산동륙국 山東六國을 소멸

掃滅하며 만리장성 萬里長城을 싸하 위엄威嚴이런하에 진동하던 진시

황 秦始皇의 영웅으로도 동남녀 童男女를 보닉여 삼신산 三神山 불

사약 不死藥을 구하다가 못하여 속초여산 (宿草驪山)에 무덤이 놓하

경 명 산 성

시며 승로반 承露盤에 이슬을 먹으며 태산泰山에 봉선封禪하고 허상에 두루노라 신선을 만나고져하던 한무제 漢武帝의 세력으로도 분슈 分秀汾水秋風에 회심悔心이 뭉뚱하야 글으되 세상에 었지 신선이 잇는 세상에 신선이 업느줄로 으느이다 박운이 답왈 신선이 업다함은 선술을 아지못하느 연고라 넷적에 황제현원씨 黃帝軒轅氏는 정호鼎湖에서 신선이되야 룡을타고 승려승려스며 왕교王喬 선자는 몸을변화하야 공중에 든닐적 아나자 날아가는 오리를 그물노 잡아보니 그 오리가 도로 왕교에 신이 되다하엿고 렬어구 列御求는 바람을 타고 든다다가 십오일만에 도라오다 하고 호공壺公이란 신선은 저저거리에 서 장스하다가 밤이되면 병속에 드러가 잠을잔다하고 갈홍葛洪이란 신선은 막대로 룡을문드려두고 든난다 하엿스니 신선이 공중으로 왕리함이 었지업다하며 석실산 石室山초부樵夫는 신선의 바둑돌을 구경하다가 독괴조루 석논거슬 세듯지못하고 집에 도라와 오디손조 五代

孫子를 보다하엿스며 동방삭 東方朔은 서왕모 西王母집에 잇는삼천년에 한번씩 결실하느 북소아를 세빈이나 도적질하여 먹었다 하엿스니 신선이 었지 장성불스 하느이가 업다하리오 다만 신선이 되지못함으로 선술의 오묘한 법이 업다 함이니다 신현옹이 글으되 청원당선성은 쇼대의말을 다시드르쇼셔 렬선전에 글으되 황제씨가 정호에서 괴룡승련 騎龍昇天할때에 여러신하들이 화테를 좇고져하야 룡의 슈염을 잡고 함이 가고져 하더니 공중에 나르러 룡의슈염이 일시에 색지며 신하들이 분분히 싸에 쪼러지다 하엿스니 일노쫓차 보건되 혼사름도 색라잔이가 엄슬썰아니라 화테가 괴룡승련 이란말도 허탄한일이라 이세상에 룡이 업거늘 룡을두고 갖다하니 었지어리석은 말슴이 아니리오 동양사름의말은 룡이잇서 풍운조화를 임의로 행하며 슈한水旱의 지양이 룡의게 잇다하야 감을을 당하면 가변에 나아가 룡왕신의게 제스하며 룡중에 스룡蛇龍과 어룡 魚龍이잇서 여의주 如意珠를 었으면 운행우서 雲行雨施를 능히행한다하니 참 어리석은 말이라 비

암과 물고기가 었지 이러흔 조화가 잇스리오 과연 그말과 못흐진디
 룡의지조가 사름보다 지남이니 었지하야 텨디지간 만물중에 룡을 데
 일귀하다 아니 하엿는뇨 동양사름이 홍상 허탄흔 말숨을 밋는코로
 넷적 인도국 사름의 학문을 볼진디 이세상이 당초에 비암의 조화로
 청갯다하야 비암을 데일무셔온 물건으로 알아 절하고 섬기며 세상이
 청긴 그림을 보진디 처음에는 코씨리를 그리고 그아래에는 남성이름
 그리며 그아래는 비암을 그러스니 세상만물이 다 비암의조화로 청갯
 다 흠이라 텨디간애 괴운이 상승하강 上昇下降할때에 한열이 상박함
 으로 엉기여 구름이되고 구름속에 음습한괴운이 비가되여 쪼러지는코로
 녀름에는 비가만코 겨울에는 비가화하야 눈이됨이라 었지 무지흔 비
 암곳흔물건이 능히 비를 느끼게하리오 그런즉 황태가 룡을득고 승텨
 혼다함은 거짓말이오 또흔 왕교와 렬자와 호공과 갈홍과 동방삭이가
 다 장성불스 홀진디 지금도 세상에 잇슬거시오 신선은 육신까지 죽
 지 아니하단 하오니 반드시 눈에 보일지라 선성은 그 신선들을 몇

변이나 맛나보시니앗가 백운왕 초성은 아직 도성덕림이 되지못함으로
 맛나보지는 못하엿는디다 신련옹이 골으디 당나라 시편詩篇에왈 리벽
 李白이 괴경비상텨 騎鯨飛上天이라 하섯스니 이거슨 리래벽이 술이
 취하야 처석강 采石江에서 물속에 들뱃출 스랑하야 손으로 잡고져
 하다가 물에 빠져죽엇거늘 후세에 사인들이 공연히 말을 지어 리벽
 은 련상선관으로 인간에 적하謫下하엿다가 다시 교래를득고 날나 하
 늘노 올라갓다 흠이오 옥국玉局선조仙子 소동파는 적벽강 赤壁江에
 논일적에 표현히 우화등선 羽化登仙이라 하엿스나 못출내 죽엇스니
 조고로 육신이 변화하야 신선된이가 었지잇스리오 고시에골으디 무스
 시신선 無事是神仙 이라고 또골으디 이월농부 二月農夫 팔월선 八月仙이라
 하엿스니 일업시 한가흔 사름을 지목하야 신선이라 함이오 동국력스에 골
 으디 환인桓因의 아들 단군이 일천여년을 조선왕으로 잇다가 아사달산에
 드러가 신선이 되엿다하고 신라국 명유 최고운은 지리산에 종적을
 감초아 신선이 되엿다 하엿스나 이말숨은 다 유전하논 야인지설이라

신선이 만약 장성불사 할진디 지금 이세상에 왕리할지라 엇지 혼사
 림도 다시 맛나본이가 업는노 도모지 허탄호 말이라 선도를 존송하
 는자 흥상 로빅양으로 스승을 삼나니 그가 저술호 도덕경에 글이디
 하늘에도는 다도지 아니하여도 이과기를 잘하시고 말슴하지 아니하여도
 응하기를 잘하시며 부르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온다 하였스며 또글이
 디련도는 천함이 업서 흥상 선호사름을 천호다 하였스니 일노쫓차
 보건디 로즈의 성인으로도 현묘호 리치를 말슴하면 흥상 하느님의
 도를칭도호지라 동서양 세계에 종교를 말호진디 호호탕탕 하시고 혁
 혁 광명하시며 광대무제 하신 하느님의도가 데일큰지라 하느님의 전
 능하신 신성과 사름이 사름된 리치와 령혼의 령혼된 원소를 아지못
 하면 엇지 족히 더브러 도학을 말슴하리오 빅운이 청파에 랑구히
 안젧다가 물어글이디 나도 만물중에 사름이 귀호줄을 알거니와 엇디
 케 된리치는 아지못하오니 혼변듯기를 원하노이다 신련옹이 글이디
 티초시에 하느님씩셔 흠으로 사름을 돈드시고 괴운을부러 코으로 드

경 명 산 성

55
 려보내샤 성명의 사름이 되게하였스니 일흠은 아담이라 려하만국에
 만민들이 다 아담의 조손이 되자아는자 업스며 사름의 사름된 조
 격姿格을 의론컨디 형테와 령혼이 합하야 사름을 일운지라 육체는
 뼈와살이 려합하야 령리호 괴게하나히 되엿스니 발 하나에도 골절이
 만흐며 무릎뼈는 능히 전후로 동하며 응치뼈는 능히 전후좌우로 동
 하느거슨 사름이 행동하기에 쉽게 흠이오 손에는 다섯 손가락이 있
 고 손가락 마다 세마디 가잇는것은 무슴 물건이던지 잡고 가지기에
 편이케 흠이오 팔에는 두뼈가 잇서 하나온 아리로 손목에 려접하고
 하나온 우으로 팔꿈치에 려접호것은 운동하기에 쉽게흠이오 엇기뼈는
 상하와 좌우로 동하야 다 거리엄이 엇게하고 목에뼈는 두마디가 있
 서 하나온 능히들고 굽호리며 하나온 능히 좌우로 도라드니게 하였
 시며 등뼈는 二十四가 스실로치 려접하고 뼈마다 힘줄노 쓰셔
 골신(屈伸)케 하였시며 다른뼈는 마디마다 골이잇시되 오직 등뼈
 는 궁기잇셔 골슈로 씌이여 우호로 좌우에 통케하고 정기(精氣)를

경 명 산 성

경 명 산 성

엇어 스지뵈레로 동하게 하는너 대개뵈가 동하기를 여샹히 하는것은
 힘줄이 잇서 었어민힘이라 힘줄이 뼈에 었히여 능히 굴하게도 하고
 능히 직하게도하며 능히 스방으로 전동하게도 하는것이오 또호 밭줄
 이 잇서 염동으로 좇차 근원을 말하야 실낱긋치 온몸에 퍼지기를
 밧헤 고랑을 지어 노코 물을 띠여 곡식을 즈양(滋養)케 함과 일반
 이라 대개 염동이 홀노 중앙에 잇서 혈맥의 명령을 밧아 운동하고
 동행하야 삼시간 이라도 쉬지 아니하고 허파는 오구리며 폐고 호흡
 (呼吸)하기를 풀무레와 긋치하며 그형질은 심히적고 연하야 숨과
 하며 진액(津液)의 피가 지나갈새에 썩기는 브리고 정액(精液)만 두
 어 숨키고 도하는 가온딕 양기(養氣)를 었어 전례를 영화 롭게하고
 입은 음식함을 맛하느딕 압니는 갈과긋치 썰고 어금니는 밧돌긋치
 갈며 목구멍은 삼키고 장위(腸胃)는 음식을 밧아 식이여 진액을 허
 파로 보닌것이오 두귀는 가온딕 얇은 껍질이 잇서 북을 메임긋치
 되고 두궁글 각각분하야 바람이 통하게 하고로 물건이 부드치면 울

경 명 산 성

이여 소리가 나아와 들니게 되엿고 눈은 보는것을 맛하 멀니 밧최
 이는 거울과 긋하니 대쇼 물건을 다 보게하며 눈가이 견고하고 눈
 혼것은 강경흔 물건을 방비함이오 눈가에 털이 잇는것은 희살과 모
 리를 막게하며 눈우에 쌍눈점이 잇는것은 이마의 삼을 막으며 눈물
 이 잇서 번번히 눈알을 써서 뇌게 하는것이오 코는 귀운의 출입을
 맛하스니 뇌슈(腦髓)에서 흐르는 휴흔것과 눈에서 었기는 즈음을 내여
 보내는 뇌천이 되게하고 혀는 두가지 일을 맛타스니 첫째는 산함신
 감고(酸醎幸甘苦) 다섯가지 맛을 분별하되 금을 련단하는 화로가 금
 을 록여 진가를 었는것 긋치하며 둘째는 궁상각치우 (宮商角徵羽)
 다섯가지 소리를 내니 목구멍과 치아 식이로 나아오는것이 맛치
 종악 하는자 손가락을 놀니여 소리를 일일과 긋하리라 뼈는 대개
 이뵈여 마디가 잇고 살은 두가지 모양이 잇는딕 건강흔 피부와 연
 약흔 장부가 되엿서며 피가 심동에 좌방실(左房室)노 좇차느와 동맥
 관(動脈管)으로 행하야 붉은 피가 전신에 통행하고 모세관(毛

細管)으로 좇아 정맥관(靜脈管)으로 행하여 푸른 피가 심통 우방
 실(右房室)로 드러가다가 도로 폐(肺)경으로 드러와 산소(酸素)의
 운을 받아 도로 붉은 피가 된 후에 심통 좌방실로 드러가니 이거
 손 육태에 잇는거시오

령혼이라 하는거슨 무형무상 혼중에 잇는 허령혼 사람이니 일신의
 군주가 된지라 그레가 적지도 아니하고 크지도 아니하며 늙지도 아
 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니 천상천하에 지극히 귀한 것이오 억천만세
 에 불로불스(不老不死) 하는내니 하느님께서 사람의게 부쳐주샤 육신의
 주인이 되게하신지라 령혼과 육신의 서로 의지함이 비유컨디 혼물에
 로 나무쫂각을 붓침과 같으니 세구년심하야 물질이 늙어 죽을때에
 각각떠러져 육신은 썩에 드러가 썩는 것이오 령혼은 하느님의 보느
 시는디로 도라갈지라 그원소(原素)를 의논컨디 의견(意見)과 감성
 (感性)과 주의(主意)가 합하여 혼령혼의 위를 일위엇시니 의견이라
 혼은 만물의 비슷함과 상덕(相對)함을 세대는 능이라 그중에 량지

경 명 산 성

(良知)와 능지(能知)와 리치경위(理致經緯)와 본원지지(本原之知)가
 잇고 량지중에 자각(自覺)과 본능(本能)과 오관각(五官覺)이 잇시며
 능지중에 동양(同樣)과 념량(念量)과 총명과 의량이 잇고 (동양)중에
 비스와 상덕과 련속連續과 후스酷思와 련습鍊習이 잇고 (념량)중에
 기억記憶과 격발激發이 잇시며 (총명)중에 차례次序와 저간這間이 잇
 고 (의량)중에 동양법과 추구법 探究法과 침작법 斟酌法과 격치학과
 산학算學과 제조학 製造學과 리학理學과 도화학 圖畫學과 수신학 修
 身學이 잇시며 (리치경위)중에 리회理會와 저단력 裁斷力과 침작법
 斟酌法이 잇고 (저단력)중에 총합법 總合法과 궁리법 窮理法이 잇시
 며 (침작법)중에 연역법 演繹法과 귀납법 歸納法이 잇고 (본원지지)
 중에 존재存在와 원인原因과 피초彼此가 잇시며 (존재)중에 물체物體
 와 령혼靈魂이 잇시니 이거슨 의견의 속흔 것이오 감각感覺이라 혼
 은 고락快樂을 촉동觸動하야 세대는 능이라 그중에 기욕嗜欲과 정조
 情操가 잇고 (기욕)중에 괴욕食과 갈욕渴과 원호음 願

呼吸과 勞欲安과 靜欲動과 남녀정욕 男女情欲이 있고
 (정조) 중에 격동激動과 발원發願과 이오지정 愛惡之情이 잇스며 (격
 동) 중에 희락喜樂과 비이悲愛와 교오驕傲와 온유溫柔와 희망希望과
 경공警恐과 괴이奇異와 동고동락 同苦同樂과 수신격동 修身激動과 레
 비격동 禮拜激動이 잇고 (수신격동) 중에 희학戲謔과 오묘각 奧妙覺과
 고대각 高大覺이 잇시며 (레비격동) 중에 의뢰依賴와 공경恭敬이 잇고
 (발원) 중에 원願을 각覺함과 운동運動과 원願을 수遂함이 잇고 (이
 오지정) 중에는 광박 廣博과 군당羣黨과 가권家眷이 잇스며 인인仁愛
 와 오중惡憎과 분노忿怒와 보슈報讐와 시괴猜忌와 감스感謝와 의아疑
 訝와 동고동락 同苦同樂이 잇시니 이거슨 다감각에 속한거시오 (주
 의) 라 함은 자기自己 몸을치리 治理하는 능이라 그중에 자연自然과
 임의任意가 잇고 (자연) 중에 운동運動과 본능 本能과 관습慣習이 잇
 시며 (운동) 중에 응답應答과 자성自成과 자발自發이 잇고 (본능) 중에
 불유고 不由故와 숙명宿命과 일양一様이 잇시며 (관습) 중에 순속循俗

경 명 산 성

경 명 산 성

과 무변통 無變通이 잇고 (임의) 중에는 청請함과 료량料量과 집의執
 意가 잇시며 (료량) 중에 측문側問과 연유緣由와 특별특과 特別動機가
 잇시며 (집의) 중에 측문側問과 허락許諾과 소원성취 所願成就와 자유
 와 연유가 잇스니 이거슨 주의에 속한거시오 령혼속혼 知도를 의론
 권되 두가지 분별이 잇시니 령지(靈才)와 삼지(心才)이오 대례를 총
 료하면 다섯가지 도목이 잇시니 각(覺)과 오(悟)와 억(憶)과 스(思)
 와 상(像)이니

첫자 각이라 함은 몸받게 잇는거슬 세대는 것이라 사름이 받게물건 음동
 할때에 오관(五官)이 잇서 그다섯 구멍으로 통하는거시오 그능히 통하야
 아노자는 오관만 가지고 아노거시오 아니오 다만 각이 잇슴으로 인하야 아노
 지라 이럼으로 오관을 족히 하석함이필요 할지라 우리 네전 학문에 닮되
 이목구비심 耳目口鼻心으로 오관이라 하노니 갑히 생각 하건디 심(心)은
 으로 써오관의 반열에 두는거시오 타당(妥當)치 아니흔지라 대개 오관의 지적
 으로 오관과 심이 분별되는니 오관의 지적이라 하노거슨 전혀의물을 통

향여가자고 그엇더흔 거슬 통괴함이오 심이라 향는거슨 사람의 몸안
 에 잇서 오관을 인향야셔 바글 통향느니 귀는 듯는거슬 맛흐매 심
 이 인향야 물건의 소리를 알고 눈은 보는거슬 맛흐매 심이 인향야
 물건의 빛을 알고 입은 맛봄을 맛흐매 심이 인향야 물건의 맛을
 알고 코는 내음식을 맛흐매 심이 인향야 물건의 향취 (香臭)와 악
 취惡臭를 아느니 그런고로 심이 업스즉 오관이 그지척을 행할수 업
 는거슨 드러도 들리지 아니하고 먹어도 맛을 아지못함며 셔면 성선
 현에 드러가도 그내음식을 모를지라 일노 말미암아 말할진디 보고
 듯고 맛보고 내음식 맛는거슨 다 심의 주장 향는바 일리오 오관이
 다심의 통활 향는디 도라가지 아님이 업느니라 비유컨디 심이 맛치
 흠님군과 又향야 심궁深宮에 잇스매 오관은 각각 대신과 又향야 님
 군이 그대신 들을 인향야 바게일을 아는것과 又흔즉 심이 오관으로
 더브러 군신의 분별이 잇슴과 又흐니 엇지 오관으로 더브러 동렬이
 되리오 대더 심을 님군의 위로 바든즉 오관중에 흠위가 비엿스니

경 명 산 성

누가 그지임을 맛흐며 그브러둔 지척을 무어시 행하리오 소리와 빛
 과 내음식와 맛슨 이목구비가 맛하거니와 만일 물건의 연(軟)하고
 둔둔함며 차고 더운거슬 알고즈 향면 그누가 맛하느뇨 엇지 그물건
 이 피부肌膚에 다닿치매 문져셔 알미아니뇨 그런즉 살이 문지는 거
 슬 맛홀만 五官官이 됴을 가히알지니 만일 심을 살노 바꾼즉 이목
 구비부 耳目口鼻膚가 되여 오관의 직분이 일노써 바를지라 넷사람이
 오관을 의론함매 심을 말하고 부를 말하지 아니함엿스니 이거시 오
 향을 의론함매 草木을 말하고 풍風을 말하지 아니함과 혼가지로 그
 룯흠이라 대더 물건마다 소리와 빛치 잇스매 사람이 귀와 눈이 잇
 서 일노써 알고 물건이 내음식와 맛시 잇스매 사람이 코와 입이
 잇서 일노써 알고 물건이 연하고 둔둔함며 차고 더운거시 잇스매
 사람이 살이 잇서 일노써 알아 오관의 지척이 백물의 성품으로 더
 브러 서로 비합 혼거슨 하느님씩셔 사람과 물건을 조성향야 그오묘
 향신 경영되로 각각 그소용에 맞게 향심알너라

경 명 산 성

들지 오라 함은 몸안의 일을 아는지니 사람이 오함이 잇슴으로 능히 내가
 나뉘을 알고 또 나의 함은바 일을 아는지 그러므로 심지와 령지를 다 오로
 써 거느릴바 | 되었느니라 대개 령지의 각이 잇서 차고 더운거슬
 색드르면 오함이 또 잇서 곳 색드른자 | 낸줄 알며 심지의 사랑함
 이 잇서 착한거슬 사랑하면 또 오함이 잇서 곳 사랑함은자 | 낸줄
 알고 또 외물은 눈으로 볼수잇고 안미음은 눈으로 볼수 업거니와
 오함이 잇서 써 통함은 거시 붉은 거울에 반쥬 返照함이 보지 못
 함은자 를보는것 못흐니 사람이 진실노 미음을 안정安靜이 함야 스
 스로 슬피면 모든 일심一心의 스념思念과 정욕情欲을 오치 못함이
 업슴은 마치 물이 밋긔지 붉은 것 못흐나 그러나 령혼의 스념과 정
 욕은 나의 색드른 바이로되 신체의 빼와 힘줄은 나의 가히 색드르지
 못함은 바 | 나 이는 령혼이 나요 육신이 내가 아니라 육신은 불과
 사 나의 스용使用 함은 물건인줄을 알니로다 그런고로 신체는 반드
 사 령혼이 그가온디 잇서야 사람이 되느니 령혼이 만일몸을 떠는면

경 명 산 성

경 명 산 성

몸은 곳죽으되 령혼은 영원히 잇는거시라 또 오함이 잇서 능히 내
 가 자연이 잇는거시 아니오 반드시 자연이 제신자의 성혼바 인줄을
 아는지 이에 서양시에 西洋詩를으되 내가 잇슨즉 하느님이 반드시
 계시니 나는 사람이요 하느님은 조물의 신이라 함였스니 이는 내가
 나의 잇는거슬 색드르매 주의 반드시 제신줄을 알미니 그법이 7장
 간략簡略하고 참되도다
 세지는 괴역함이니 각과 오는 아는것에 처음일이 토되 오관의 각 함은바
 와 미음의 오 함은바로 함여곰 흥상 붓들고 일치 아니코즈 함면 불가불 또
 함가지 지능이 잇서야 함지라 이에 령지속에 억이 잇스되 억함이 잇스후에
 스려思慮 함은 공功이 가히 시작함야 함은고로 억과 스들이 다 잇서 서
 로 도와주어야 그공을 전혀 일음이요 열령 억만 함고 스함지 아니함면
 비유컨디 먹기를 너머 만히함야 싸히여 소화되지 못함파 7고 스만
 함고 억함지 아니함면 비유컨디 먹은거시 속히 소화가 되여 그 정
 괴를 엇지 못함파 7호는지라 이뿐외라 또억의 필요함을 갓가히 보

온즉 억이난 지능이 사람의 지식에만 유익할뿐 아니라 또사람이 복
 누리기에 3장 요긴하니 대개 능히 지나간 경력 經歷한일을 기억하
 족 전에 본바 아름다운 경치와 드문바 아담雅淡한 소리가 3음에
 없히여 잇스며 또죽은 천구가 완연宛然이 성시와 3장야 전에 3장
 말슴과 지나간 형실의 죽히 본밧을만 3장야를 근절히 기록하야 너저
 브리지 아니하고 일노 인하야 내가 과연 능히 어질지 아닌자를 스
 피지 아니하고 착하지 아닌일을 행하지 아니하족 회억 回憶한들여지의
 후일에락樂이 반드서 더할거시오 지나간새가 감함이 업스리니 이는 하느
 님께서 사름으로 하여곰 널리보고 널리드러서 그지혜를 일우고자 하샤
 특별히 기록하는 성품을 품부稟賦하샤 씨다복 多福함을 3초심 일니라
 넷저스라 3장야는 3장야 각하고 스는 일을 취하야 그정 精進 거슬
 엇음이니 비유컨더 소가 풀을 먹으며 도로썩어 그 진익을 음엇과
 3고 공장이 그릇을 지으매 마략 磨琢하야 그업을 정밀 精密
 하게 함과 3장야라 또스의 지능으로 3장야로 3장야를 분별하

경 명 산 성

야 류類를 추측推測하며 3장야로 브터근본을 미루어 일의 그러함을
 알고 후 근본을 좇차 3장야 구상야 일의 당연 3장야를 알며 후 3
 나를 드러 열을알고 후네거슬 비화 새거슬 아느니 이에 스의지능이
 소용이 크도다 사름과 물건을 일노 말미암아 분별하니 지혜 잇는것
 과 미련한거슬 일노 말미암아 보느니라 스로 인하야 사름과 금슈가
 분별이 되느니라 비록 금슈의 쓰는 오관이 3장 정밀하야 왕왕히
 사름이 능히 미치지 못하나 스는 다만 사름의게만 잇고 사름이 홀
 노만 능히하고 금슈는 능히 못하니 대개 금슈는 처음으로 브터그종
 말 終末을 아지 못하고 종말을 보아 그처음을 미루지 못하리라 설
 령 원승이란 증성이 비록 약간 사름의 형상과 3고 성품이 불을
 도화하나 불 피울줄도 모르고 불피울 거슬 맛나도 나무를 갖다노아
 불을 죽지 안게 할줄 아지못하며 앵무새는 비록 능히 사름의 말을
 비호나 다만 그소리만 나히고 능히 그뜻을 슬피지 못하느거슨 다름
 아니라 능히 생각지 못함이로되 사름인즉 생각함으로 써 갖가온뒤를

경 명 산 성

시작하야 먼디까지 너르매 금성수생을 드러 가히 리성來生을 알며
 생각함으로 써 앓흔디를 시작하야 김흔디를 드러가매 임의 본거슬
 인하야 보지못 할거슬 알고 모릇 이목의 미치지 못할바도 생각함즉
 능히 통함이 잇느니 일노써 하느님책셔 사름으로 하여곰 이스思하는
 저능才能을 주시는거슨 사름이 보지못 하는 대유지를 생각하야 영성
 의 복을 스스로 예비코저 하심이니 사름이 그 생각을 숨가 흘진나라
 다섯적 상像이란말은 빈거슬 의지하고 형상形像을 생각하야 엄연이
 실상 그일과 그물건이 잇는것갓치 하느니라 이에 상像이란자는 작과
 오와게 크게 도음하니 대개각 함은 물건의 형상으로 알되 상함은 그
 물건이 업서도 그모양을 그리고 보일수 잇스며 소함은 씨일의 정밀
 함을 알되 상함은 그일을 지어 헛되히 그리치를 취탁 揣度하느고로
 상의 지조가 작과 스의 지조로 서로 방불하되 특별히 허실을 분간
 할뿐이라 사름이 밤에 잘때에 생각도 업고 색드름이 업시 쓸구는
 수가 잇섯스니 이는 또한 상으로 브터 엇음이나 다만 쓸굴때에 하

논바를 색드지도 못하야 뜻시업시 일우되 상像쓰는 법이 이와갓치
 유의하야 함이니 그헛거슬 의지하야 형상을 생각하면 실상 그스물이
 잇는것 갓치하느자 - 또한 쓸과 갓흔즉 상의 지조는 귀하고 유익함
 이 또한 저지아니 할지라 설령 글조도 가차假借가 잇고 뜻도 비유
 가 잇스나 상의 지조가 아니면 글조의 가차와 뜻에 비유를 엇지못
 함이니 이에 상의 지조가 잇서 문조가 더욱 그업을 정밀하게 하며
 리웃스름과 교제 하느법에 상씀이 요긴하니 대개 사름의 고난을 불
 상이 녀여 사랑하느 모음으로 몸소당흔 거스로 보느거슨 상의 지조
 가 잇서 측은흔 모음이 속에서 나게함ियो 상이란 지조는 사름의
 직업에도 귀요하니 대개 지혜 잇는자 상의 지조가 잇스매 물건을
 제조하야 그릇슬 만가지 모양으로 일우게 함이라 이에 상이 잇슴으
 로 써 편하가 다 그리익을 엇느니라 상과 억이 상반 하야 지나간
 일을 억락 臆度하야 보면 오히려 잇거이와 장리에 알인즉 바르코
 형상하매 완연히 너르느것 갓흐니 상의 지조를 경홀이 녀이지 못할

지라 그견고로 사람의 지능이 잇스매 금일 고초에 처하여도 후일
안락을 생각하느니 이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상의 지능을 주사 써
사람의 덕을 권면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심 일너라 궁구하건디
각과 오는 아난거세 근본이니 대개 억함이 잇서 근본을 일치아나하
고 사함이 잇서 근본을 류로 추척하며 상함이 잇서 맛춤니 엇는거
손 근본디로 잇지 아나하야 발달케 하니 비유견디 누에가 실을 토
함파 뚫흐니 대개 처음에 못치를 일우매 그뱃탕을 엇엇고 못치에서
실을 뽕으매 그저료를 취함ियो 그실을 길삼함매 필육을 일함ियो
그필육을 염색함매 그문치를 불함이니 이와긔치 령지靈才의 상像함이
로 써 나존디로 말미암아 기쁜디 긔지 밋치는 바이라 대더 령혼이
몸에 잇서 오관의 열녀불함을 남느니 진실노 각지覺才가 업슨즉 혼
덩이 불건이 어둡고 완만하야 신령치 못하고 육중에 가도아 잇서
그육하고 어두어 스사로 상감 傷感함파 긔홀지라 그러나 각만잇고
오가 업슨즉 일이 나르러도 불히지 못하야 쓸구느자 일을 행하기는

성 산 명 경

62

성 산 명 경

의연依然하나 혼미하여 세듯지 못함파 긔고 오함만 잇고 억함이 업
슨즉 디경이 지나매 못 너저브림과 긔고 밋친 병든자 왼손으로 물
건을 집으며 올흔손으로 브림과 긔홀거시오 억함만 잇고 스함이 업
슨즉 비함은 싸했스나 변동치 못하야 안줄방이 집에 제산이 싸여잇
스나 취하야 쓰지못 함파 긔홀거시오 스함만 잇고 상함이 업슨즉
문치에 궁하고 구제救濟에 익기며 제조에 졸拙하야 새거슬 능히 발
명치 못하며 넷거슬 능히 변역지 못하고 길을 좇차 박회를 직힐뿐
이니 일노써 령혼의 모든 지조를 긔초와 잇는거시 다 차례로 서로
의지하야 씀이되고 하나히 업서도 가치 아님을 알지니라 빅운이 형
파에 크게놀나 글으디 그디는 첨가위 철학박사로다 령혼의 령지는
임의드러거니와 심지는 엇더하뇨 신련함이 또글으디 심지心才를 갖가
히 볼진디 심지는 네가지가 잇서 사람이 의지하야 써 덕을 닥느바
이니 그일함인즉 一은 욕심慾心이오 二는 인정人情이오 三은 묘화妙好
고 위위惡함이요 四는 시비是非함이니라

一 관욕심 이란자는 두가지로 잇스니 하나는 식食이요 하나는 색色이
 니 이 두가지가 다 사람의게 적분이 잇는니라 대개 괴갈 하는욕심으
 로 써성명을 기르고 남녀의 욕심으로 써 씨족이 번성하는니 이거슨
 사람의게만 잇슬 뿐외라 금슈의게도 잇는니라 그욕심이 믿음에 성겨
 나고 발흥면 몸으로써 흥하여 사업치 나르니니 욕심이 잇슬때에 만
 일 일우지못하면 몸이 못평안치 못흔지라 설령 사람이 진실노 음식
 이 양성함을 알기는 아다 혹 엇던때는 일이 번다 함으로 인하여
 먹기를 너저브림이 잇슬가 두려워 하는고로 괴갈함으로 너저브림을
 흥당하여 음식을 먹게하고 또흔 양식을 덕당하여 먹기를 곳치지 안
 케 함이나라 사람이 진실노 비합 함으로 씨족을 번성케 함을 알기
 는아나 그러나 허산 하기애 어려움과 양육하기애 슈고 로움을 쓰리
 여 폐하는자ㅣ 잇슬가 두려워 하는고로 대욕소존 大欲所存의 인도흔
 바 되어 괴약 업시조연 이성겨나스니 일노 인하여 인류를 망치안케
 함이나라 하는님 써서사람을 조성하시매 이 두가지 큰욕심으로 써 품

부흥신거사 과연 김고 오묘 함이나라 이 두가지 욕심을 하는님의 법
 대로 쓰게되면 유익을 얻을 거시되 만일 하는님의 법을 범하여
 쓰게되면 그손해가 三장크도다
 二 관정 이란거슨 교제상에 성겨난 거시니 대개 믿음에 감동 혼바되
 면 곳 정을 발하여 성겨날 거시되 괴회 업시 성겨날거사 아니오
 사들이 잇서야 할거시여늘 이에 시속에 닳으되 닳음까지 정이 잇서
 사람을 감동한다 하는니 이 닳음까지 정은 一은 희喜요 二는 노怒요
 三은 이哀요 四는 락樂이요 五는 이愛요 六은 오惡요 七은 욕慾이니라
 이 칠정을 그욕히 생각건디 그중 인정의 부속付屬 아니할 거시 몇가
 지 잇스며 또흔 몇가지 부속흔거시 잇는니라 대개 욕심은 제除할거
 사니 욕심은 몸으로 좇차 발하여 그욕심을 다흔즉 곳 곳치고 정과
 곳치 없하여 곳침이 업는거사 아니니 욕심을 정이라하지 못할거시오
 또 의와 락을 제할거시니 대개 사람이 조괴모음의 도화 하는거슬
 일흔즉 숨히 할거시오 잇은즉 즐거워 하는니 이에 의와 락은 엇고

경 명 산 성

일노되로 말미암아 성겨나고 사람의 마음으로 인하여 나지 아니하는
 니 그런고로 이와 락을 또한 정의 붓치지 못할거시오 또한 회와 노를
 제할거시니 대개 깃버 하는것와 노하는거슨 사랑하고 위위 하는거슬
 말미암아 성하여 때 업시 할가지로 발 하는거슨 마치 그림자가 그
 실상을 따름과 같아 이에 불과시 不過是 사랑하고 위위 하는거세
 현저現著호 싣치라 그런고로 회와 노를 반드시 일홈 지어 정의 반
 열에 붙칠거시 아니니라 이에 정情을 말할진디 사랑함과 위위 하는
 거시 실상 정의 큰싣치니 원망함과 불쌍히 녀이느거슬 합흔즉 정에
 못초인저라 대개 사랑함과 불쌍히 녀이느거슨 착 한거슬 권면 하는
 바되고 위위함과 원망 하는거슨 악한거슬 브리느바 되느니라 설령
 사람이 욕심이 잇서 자식을 성출술 알고 자식이 나매 기를술을 알
 지못하면 엇지할고 만일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마음이 자연히 이러
 그본분이 된다 할진디 아지못거라 대개 세상은 온갖사람이 다 그본
 분을 알지도 못할거시오 혹 능히알지라도 못 감행하여 할것못하면

경 명 산 성

반드시 즐거우지 아니할지라 부모가 그자식을 기를은 비록 극히 슈
 고롭고 괴로오나 또한 사랑함이 잇슴으로 마음에 달게 녀이느바이라
 그런고로 악자愛子 흠이 부모의 마음에 발하는거시 마치 젖이 가
 슴에서 소스남과 같흔저라 일노 말미암아 미루워 보건디 사랑함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느니 대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디 자의
 慈愛로 써하며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되 효로써 감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되 우의로써 형하며 벗이 서로 사랑하디 우의로써 형하는니
 자의慈愛하고 의로운 것은 정의 한가지 사랑 하는디서 근본치 아
 님이 업서 상하의 명분名分이 차례가 어지럽지 안케 하는자는 실노
 이정愛情의 발함이니 각각 그당연함을 엿음이라 위위 하는것의 직분
 은 간사 한것을 싣혀브리고 사람의 정도正道 직하는거슬 돕느바이라
 그러나 싣혀브리느 마음이 모질함과 분노함과 구슈仇讎와 투기함이
 발솟치를 접하여 나르느니 이는 위위 하는것에 근본은 비록바르나
 그말류 末流는 간사한디 드러가기가 쉬워 사랑하는 근원의 훈갈갓치

정하야 그말류가 흠씩 착후티로 도라갑과 못지 아닌차라 그런고로
 위위하는 창은 맛당히 힘써 그 말류를 막을 거차라 원망함은 의의
 당연한 것이되니 대개 사람이 해롭게 하려거든 내가 그나를 해하
 려 하는사람을 원망하나 그러나 하늘이 님군을 세워서 백성의 원통
 함을 심판하게 하였스즉 사람이 천단히 그원통함을 감지 못할거시여
 놀랄지며 참진 하느님씩셔 의로 상주시고 의로벌주신 거시스스로
 공변됨이 잇스니 성전에 님군씩 호소하고 스후에 하느님씩 듣는거시
 그원망함의 바른거슬 엇음이라 불쌍히 녀임은 사람이 그리웁 사람의
 괴로움을 인하야 불쌍히 녀이고 민망히 녀임이니 사랑함이 천함을
 인하야 칭하고 덕을 인하야 칭함과 못지아나하니 덕이 잇고 업는거
 슌 관계치 아니하니라 대개 사람이 천함도 업고 덕도 업서 악한
 형실과 더러운 형상으로 잇슬지라도 님의 괴로움만 보면 곳 불쌍한
 마음이 나기를 맞치가슴 가온터 무슴 소리가 잇서 나를 명하야 가
 서 구하라 함과 못하니라 이네가지 정은 이에 믿음에서 근원하야 나

경 명 산 생

서 다닷침이 잇스면 때업시 말하야 잇슬거시나 이거슨 하느님씩셔
 사람으로 하여곰 세상에 처할때 특별히 이네가지 정을 품부하야 써
 교제하는 도를 순하게 하심일너라 사람의 심저속에 잇는 네가지 저
 능중에 셋째 저능이 도화함이니 사람이 한가지로 도화하는자 다숫과
 지 연구할거시 잇스니 一은 저식이오 二는 교제요 三은 일함이요
 四는 용망이오 五는 리로움이라 비록 사람의 뜻은 각각 다르나 이다
 숫가지 도화 하는거슨 다 자연한 되셔 나느니 눈이 아름다운 빛출
 도화함과 귀가 아름다운 소리를 조화함이 다 죽히사람을 권면하야
 아름다운 일을 일우게 할지라 자식으로 말할진디 사람이 저식을 도
 화하지 아니하는나가 업스나 곳 말너외국에 잇고 또 돕가는 일월성슈
 못흔거시 비록 몸의 긴요치 아나흔 거시라도 누가 그일을 뜻기를
 줄기치 아니하리오 동조童子 선성씩 나아가 함을다하야 공부하는거슨
 저작을 구하고저 함이나 만일 사람이 년적典籍을 상고하며 물리를
 궁구하야 괴이하고 정한가예를 지음은 저식을 도화하는자 아니고 능

경 명 산 생

히 이 못치 할 것 노 이는 넷을 도화하고 구하기를 만첩히 할야 씨
 학문을 일음은 비록 공자라도 또 한 감히 성이지지 흠을 지시自恃치
 아니하니라 사름마다 교제를 도화할야 업을 정밀하고 무리를 줄거
 야 스괴노도가 너러나 성을 싸코 나라를 세워 동류同類를 모도고
 무리로 난호매 슈작하고 왕리하는도가 번성 하는거시 교제함이니 그
 러치 아난자는 악한 증성이 김흔산에 홀노 처함과 못치 외롭고 적
 을것시라 사름이 박덕함이 만흔족 일음을 도화할야 빗나게 하는싱각
 이 잇서 그덕을 힘쓰니 이에 사름이 덕을 흔히 명예를 도화함으로
 일우는거슨 악한거시 일음을 패하게 함을 못그려하는 연고라 사름이 배
 을음이 만흔족 고통됨을 도화하는 괴운이잇서 분력奮力할야 압으로 향하
 면 강綱을 들때 목目이 베푸러 나라를 다스릴지라 또 한 사름이 리를도화
 하는사름이 잇서 농스와 공장과 장수를 부즈런히하면 나라이 부출지라
 三觀시비란거슨 이여러가지 일이 잇스매 진실노 능히 시비를 침
 작지 못흔족 다 착하지 못할야 두가지 욕심이 반드시 밋중

放縱하고 네가지 정이 반드시 문란하고 그스랑하고 위위함을 함
 부로 행할야 사름이 금슈보다 다른자 드문지라 이는 밋즈 닐
 온바 말슴이 서인庶人은 브리고 군주는 둔다함심과 못흔지라 대개
 시비의 모음이 잇스족 탐욕이 비록 중하나 감히 사름의게 써아서
 지그를 리롭게 못할며 천축이 비록갓가오나 감히 저의를 도아 악한
 거슬 할지못 할며 악인은 용납지 못할거시로되 감히 천단히 죽이지
 못할며 관장이 죄슈를 판결할때 비록 불상이 녀이나 감히 못치못할
 며 군스가 전장에 림할때 비록 두려워 하나 감히도망치 못할며 일
 흠과 리와 용임은 다도화하나 감히 망녕되히 구하고 학부로 섰치지
 못하느니 이정육과 호오 好惡의 엇어 다스림이요 그다스리난자는 이
 에 시비의 모음이라 코로 인심은 나라와 못고 시비의심은 치국하는
 법이 되느니 성경에 닐온바 사름이 신神의 법이 잇서 그모음의 과
 록함이 못이뵈시니라 모릇 사름의 하는바 욕심과 사랑하고 위위하는
 것과 도화함과 올코 그른이 네가지의 버셔나지 아니할야 후 음식을

구하고 질거운 일을 위하야 하며 후 사랑하고 위하는거슬 인하야
하고 후 일흔과 용림과 리익의 아람다운 거슬인하야 하며 후 그
거슬 인하야 하지아니하고 후 올흔거슬 인하야 하느니 사름이 이
단四端이 잇슴은 그하노바를 착하게하노바라 설스 이스단이 업슨즉
스름이 비록 모든령지를 그초와 잇슬지라도 비유케되 비의 뜻되와
제구가 비록갓초와스나 바람이 업서 형치못함과 그흐니 그런고로 령
지가 잇서 써 아노거슬 나르노거슨 능히 선악을 분별하노바요 사
비의 모음이 잇서 써 일을 지음은 착한것 하기를 달게녀이고 악한
것 하기를 달게녀이지 아나하노바이며 또 도화함으로 착한디 나아가
고 위위함으로 악한 거슬멀니하며 두려워 함으로 지앙을 멀니하고
바라노 거스로 복을 엿느니 엿지 하느님이 사름의게 성품을 품부하
샤 그리치를 밝히고 착한거슬 하야 복을 누리고져 하심이나니요 그
러나 그령혼을 창조하심이 그신테의 묘한거슨 사름이 의방하야 모든
되 령혼의 묘한거시아 그가히 의방하야 모든것는노 성서에 글은디

경 명 산 성

81
나의몸을 성하아바지가 나를 착한대 내 또한 공경하거든 하물며 나
의 령혼을 품부하신 아바지를 내맛당히 정성으로 복종하야 써 영성
함을 엿지아니 하리오하니라 사름이 하느님께 주권리를 품부하야
밧은고로 령혼이 항상 일신의 군주가되야 스지빅테를 기계와 하인갓
치 부리나니 사름마다 두뇌頭腦에 명오明悟와 기함記含과 전보스 電
報司가잇서 스지빅테에 지극히 적은 혈락 血絡으로 연보션을 마련
하엿는지라 그런고로 우리몸에 적은 가시 하나히 찌르던지 벼룩하나
히 물찌라도 연보션이 곳되두로 보명하야 알게하면 령대에게선 연군
이 곳 답연보를 발하야 환란을 막으라고 위티함과 압흔거슬 피케
하느 거시라 그런즉 정작사름은 일신의 주창하느 령혼이 사름이오
스지빅테는 령혼의 스역하느 하인이 분명하리라 이세상일노 말하리라
도 신하가 대확대 폐하압해 입시할때에 하인비가 그치 갈수가 업거
늘 하물며 저존막대 하시고 거룩한 하느님 압해갈때에 더러운 육신
을 드리고 갈수업스며 또한 육체는 령혼의 집이라 집이 문혀져 업

경 명 산 성

서질때에 그 집주인이 반드시 다른대로 갈거시오 집과곳치 망하지아
 니 할리니 그런고로 육신은 죽은후에 싸속으로 드러갈거시오 령혼은
 형상이 업는중에 잇는참사람인고로 영영히 죽지아니 하는거시라 세상
 에 었지 육테와 곳치 영영불스하는 신선이 잇스리오 선성은 생각할
 여 보쇼셔 박운이 령과에 황연히 세드러 곁으디 신련옹의 고명확론
 을 드르니 비록 년쇼하나 가위 오지스표 吾之師表로다 홍중胷中에
 모식芽塞한거시 돈연히 열닌다하교 또 무러곁으디 육테가 령혼의 과
 계와 스역이라함은 올커니와 령혼의 집이라함은 의심잇는 말슴이라
 가령이집이 문허질때에 사람이 다른집으로 간다하면 령혼이 또한 다
 른사람의 육테로 드러가 실수있다 함이요 청컨디 저세히 그르치쇼셔
 신련옹이 곁으디 사람의 성스는 하느님쳐분에 달닌거시라 슈요장단
 壽夭長短을 사람의 지력으로 할수업거니와 대더 집으로 육테를 비유
 함은 으희때에 일직 죽는것는 집을 약혼지목으로 모리밧헤 지음곳치
 오래지못하야 장마에 업더지는 거시오 팔구십세를 향슈하는것는 도혼

경 명 산 성

지목으로 돈돈한싸에 주초를 세움곳치 오래도록 업더지지 아니함이오
 집을 슈리치 아니하면 속히 퇴락할 념려가 잇는고로 의복음식으로
 그집을 보양함이오 몸의 병이나거든 약석으로 다스리는거슨 기와가
 상하던지 벽이 누러질때에 개와도하교 도비를하야 병을 곳침이오 집
 을 보호치 아니하야 으희들과 작란군들이 기동을 흔들며 벽을 헐게
 할면 암만도코 든든한 집이라도 오래가지 못하는거슨 사람이 주식잡
 기에 방탕하야 육테를 손상케하는것 비록 기질이 토흐나 필경은 요
 스하느거시오 집이 업더질때에 집주인이 다른대로 간다함은 령혼이
 천국이나 디옥으로 드러간다 함이라 었지 저기육테를 떠나 다른사람
 의 육테로 드러감이 잇스릿가 박운이 또무르디 령혼이 천당과 디옥
 으로 간후에는 었더케 되는노 신련옹이 답왈 디옥으로 가는자는 이
 세상에셔 살인혼자와 간음혼자와 괴인취물 하는자와 우상의게 절하던
 자와 무당과 관슈의 술업을 좇던자와 도적질하던자와 후주잡기 하던
 자와 불충 불효하던자와 교오방탕 하던사람들이니 성경에 곁으샤디

경 명 산 성

이러한 사람들은 한느님께서 심판하실때에 류황불 구령에 던지사 영
영히 나아오지 못하게 하시니 그곳에는 새지지 아니하는불과 독사
악갈과 마귀가 잇는곳이라 악한무리들이 디옥 음부에 잇서 의통하고
니를갈나라 한섯스니 이가손 영스고란 永死苦難이라 흠이오 천국의
가는자는 이세상에셔 구세주를밋어 인이화평한자와 환란군축을 인내하
던자와 세상풍속과 육신정욕과 마귀유혹을 이기느자와 온유 겸손하고
순량 후후한자와 십자가를 지고향상 예수를 좇던자들이니 만일 구주
예수씨셔 텨스던군을 거나리시고 다시 세상에 저림하실때에 라발소리
굉장하며 일월이 빛치업고 무수한 별들이 썰러지며 천동과 디진이
대단할적에 모든경건한 무리들은 구름속에 올라가 깃분 믿음으로 구세
주를마즈 흠씩보좌에 안지리니 한느님께서 락원에잇는 성명슈 실과를
주샤 먹게하시고 성명록生命錄에 일흔을 기록하시며 영성하는 면류관
을 엿을거시오 지극히 청결한 흰옷을 주샤 남게하실터이오 금은보옥
으로비치하시여 광채가 조요한 천성으로 드러가게하시리니 그곳은 한느

경 명 산 성

님과 구세주와 텨스던군들과 의인의 령혼이 잇는곳이라 향상 밝은빛
치잇서 어두운 밤이업고 환란과 질병도 업는곳이라 성경에 골으샤되
세상을 이기느자는 내가 보좌에 흠씩 안절거시오 한느님의 아들이
되게 할리라한섯스니 이가손 영성쾌락이라 한느이다

경 명 산 성

빅운이 또무르디 사람마다 천국에 드러가기는 다도화 할려니와 엇지
한야 예수만 밋으라한느노 신령용이 답왈 선성은 생각하여 보쇼셔
한느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신령이니 세상에 죄인으로 엇지 전능하신
보좌압해 갈슈잇스리오 이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거늘 한느님의
인인하시고 저비하심으로 멸망치아니하시고 도로혀 불쌍히녀이샤 삼위
일체중 데이워 되시는 독성주예수씨를 세상에 보내샤 동정녀 마리아
의 비를발어 인자가 되신후에 세상죄인들과 못치 거처하시오 의복
음식을 또한 빅성들과 못치사 죄인들을 구르치시며 병인들을 못치
시고 우리의 죽을죄를 디신밧으샤 십자가상에 못박혀 죽으시고 그흘
니신 보혈寶血노 만국만민의 죄를 씻셔 정결케 하시며 저괴몸으로

경 명 산 성

속죄하는 제물이 되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시고로 누구든지 예수를
밋는 자는 죄를 속하고 구원함을 얻느니 죄가 업은 후에야 능히 하느님
앞에 갈수가 있느거시오 예수께서는 근본 하느님이시오 또 한 사람이
신고로 하느님과 사름스이에 중보가 되신지라 예수께서 사디 나는 길에
오 성명이오 참 리치라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늘에 계신 아바
지께 갈수업다 하였스니 반드시 예수를 밋어야 천부압해 올라갈지라
사름이 높흔총루에 올라가랴하면 반드시 중간에 스드리가 잇서야 되
는것고치 천국에 드러가랴면 중보되신 예수를 인하여 되느거시오 성
경에 글으샤디 하느님과 사름스이에 중보 하나히 계시니 곳 구주
예수라 하였고 또 글으샤디 우리와 하느님스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이
잇서 멀어졌더니 예수씨의 피로 그 막힌담을 허러바리고 들노 하나
히 되게하시며 우리를 재로몬든 사름이 되게하시교 예수의 십자가로
련하여 하느님을 화친케하시며 하느님집에 혼 식구가 되게하신다 하
였스니 우리가 불가불 예수를 의지후에 천국에 올라갈수 있느거시오

경 명 산 성

라 스도 베드로께서 천하인간에 우리가 다른일함으로 구원을 얻으
수 업다 하였스니 천상천하에 하느님도 하나뿐이시오 동양서양에 구세
주도 오직 하나뿐이시라 우리가 전에는 하느님과 멀었더니 지금은
예수의 공으로 다시 가까히 되었고 네전에는 어두운 곳에잇던 죄인
이더니 지금은 붉은빛으로 나아와스며 우리가 전에는 죽는길노가는
가련호 인성이더니 지금은 사는길노 인도하시교 우리가 네전에는 마
귀에 종이되었더니 지금은 하느님의 사랑하시느 아들이 되게하셨스니
엇지 깃분일이 아니리오 이제 구세주를 밋어야 구원을 얻느리치를
말씀하였거니와 기록하신 하느님의 은혜는 실노한량 업시감샤 혼일이
라 성령은 엇지하시야 구세주를 밋으시지아니 하느님이 빅운이 형과에
혼연호 빳치잇서 글으되 나도 예수를밋어 천국에 가고져 하노니 심
련용은 곳 나의 성령이라 성령은 고명하신 말씀으로 나긋치 노둔호
데즈를 무르쳐쇼서 신련용이답왈 성령지칭 先生之稱이 일하오야 一何
誤耶아 예수씨 말씀하시디 너희는 부주의 칭하노말을 밋지말나 너희

경 명 산 성

의 선성은 하나뿐이니 그리스도 예수라 하신지라 박은의서는 오직 구
 세주의 데즈되기를 원하시는이다 이에 두사람이 손을 다시 잡고 서로
 형제되기를 약도하니 이때에 원각이 또흐 신련옹의 전후 슈작 하느
 말씀을 드레히 드른지라 모음이 감동하야 흐르리에 나아와 흠씨 예
 수씨의 데즈되기를 청하거늘 신련옹이 크게깃번하야 영광을 하느님께
 찬송하되 진도는 중시 불복 하느모양이 잇서 글으되 예수교의 종지
 와 목적을 드은즉 룬상지리를 발명함이 네전사람의 지나고 동양성현
 이 밋지못할말이 만커니와 치국 평련하의 도리와 정치 학술에는 우
 리유교만 못할가하노라 신련옹이 또글으대 진선성은 아직도 모음에
 막힘이 잇서 열너지 못함이라 정치제도와 이국스상 으로말할진디 유
 도가 었지 예수교보다 낫다하리오 공부즈당시에 철환련하하시되 도를
 행치못하시교 로마라에 벼슬 하실때에 제나라에서 녀악을 보내거늘
 막지못하야 물너가시고 맛춤내 로마라를 흥왕케 못하섯시며 밍즈와
 즈스도 전국시절에 나샤 각국왕후를 차즈보시며 말삼하엿시되 맛춤너

경 명 산 성

나라들을 부강케 못하엿거니와 영국녀황 박도리아는 예수교 신자로
 신약성경의 말씀을 가져 백성을 다스리미 직위 룬십여년에 영국으로
 려하만국중에 데일 문명훈 나라이 되게하교 오주세계에 밍주가 되엿
 시며 팔년풍진 八年風塵에 만단고초 萬端苦楚를겪고 싸흠홀시 백절불
 회 百折不回 하느사람으로 나아가 영국군스를 물너치고 미국으로영국
 의반 羈絆에서 버셔나 즈주독립이 되게하던 화성돈 華盛頓과 의대리
 意大利 정치를 기척하야 중흥독립케 하던 가부이加富爾와 마지니瑪志
 니는 다예수교의 독신하느 사람이오 보로스와 일이만 지방을 연합하
 야 불세훈위업으로 세계에 빛나게하던 비스막과 법국군스를 물너치고
 성전가를 부르던 모기장군과 슈스데독 水師提督으로 백전백승하던 내
 리손 訥利遜은 다 예수교의 철학사로 즈기나라를 사랑하교 임금의게
 충성하야 즈기몸이 죽을지언당 용진불굴 하느모음으로 나라정치를 기
 혁도하며 풍진전장에 싸흠도하야 즈기 부모지국으로 오주세계에 일등
 문명국이 되게하엿시니 실노 유교인만 못할것이 업느니라 유서에 말

숨을기를 나라에 도가 잇시면 나야오고 나라에 도가 업시면 숨는다
 하며 님군이 즈리말을 듯지 아니하면 배슬을 브리고 손종으로 물너
 가 물외에 한양하며 말하기를 시세를 맞나지 못하였다 하느니 시세
 가 영웅을 내고 영웅이 시세도 못드는 것이라 정치가 문명하도록
 시세를 못드지 아니하고 다만 편하기만 취하는 사물들이 었지 나라
 를 위하야 이쓰며 일한다 하리오 진도가 형과에 놀나글으되 서국의
 문명함이 실노 예수교 덕화의 밋천바라하고 용단한 마음으로 예수교
 밋기를 작당하거늘 신련옹이 더욱 깃버하야 이에 네사람이 곳 그
 즈리에 업디여 흠세 기도하고 다 구세주의 신도가되엿다 하니 실노
 성신의 도으심이라
 이척은 삼한고국의 탁스즈濯斯子라 하는사람이 괴술한 글이니 탁스즈
 일족이 구세주를 밋음으로 항상 성경을 공부하며 평상에 일편성
 심으로 원하기를 었지하면 성신의 능력을엿어 유도와 선도와 불도종
 교명호 선비들의게 전도하야 밋는무리를 만이 었을고 생각하더니 혼

번은 추풍秋風이 소슬蕭瑟하고 성월星月이 교결皎潔하되 락엽落葉이
 분분 紛紛하거늘 청등靑燈 서옥書屋에 칙상을 의지하야 신약성경을
 잠심완석 潛心玩索하더니 홀연히 심혼心魂이 표탕飄蕩하야 혼곳에 니
 르매 그산일홈은 성산이오 그 층티일홈은 령티라 그곳에서 네사람을
 만나서 슈작함을 듯고 깃버하다가 오경련 찬바람에 황계성 黃鷄聲이
 악악囁々 하거늘 놀나 니러나니 일장몽조가 그장 이상흔지라 서안을
 의지하야 묵묵히 생각하며 스스로 희몽하되 성산은 곳 밋는자의 몸
 이오 령티는 곳 밋는자의 마음이라 유불선삼도에서 공부하던자라도
 만일 성신이 인도하야 예수교인과 상종하면 마음이 교통하야 밋는데
 즈가 될수잇습이라 그런고로 탁스즈 그 몽조를 괴록하야 즈리의
 평일소원을 표함일너라

隆熙三年二月十五日
隆熙三年三月二十日

印刷
發行

定價金貳拾伍錢

崔炳憲先生 著

宋淳弼 閱印

發行所 貞洞皇華書齋

印刷所 大同廣智社

發賣所 京鄉各書舖



廣告

***예수
***주
***교
***변
론

딩가금심오전

이 책은 양교의 크게 지아님을 분명히 증거 하였스나
교인은 불가불를 책이오의 심잇는 자를 파혹게 하며
혹
암세제의 등불이기로 광고함

元賣所 東一書觀

分賣所 京鄉各書店

京城府杜樓洞三三三號

Handwritten numbers and symbols in the upper left quadrant, including '712' and '21'.

Handwritten numbers in the upper right corner, including '2', '1', '6', '13', and '2'.

Handwritten numbers '25 12 3 32' in the middle left area.

Handwritten numbers '25 25 4' in the middle left area.

